

민천주보

제2846호

2024년 9월 29일 | 연중 제26주일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온수 성녀 소화데레사 본당>, 1995년 설립

입당송 | 다니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 민수 11,25-29

회답송 | 시편 19(18),8.10.12-13.14(◎ 9ㄱㄴ)

-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 야고 5,1-6

복음 환호송 | 요한 17,1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넓은 포용과 엄격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삶의 길에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카파르나움에 머물 때였다. 그때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서는 종의 삶과, 그리고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이 같은 일들이 있고 난 후,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마르 9,38)

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막지 마라.”(마르 9,39)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40)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악한 것으로 여기는 일부 잘못된 사고방식을 일깨우시는 스승님의 가르침임을 알게 됩니다. 일전에 유행했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가 성당을 다니는 이들만의 것이 아닌데,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자신들만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가깝다는 독점과 배타적인 잘못된 생각,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일부에게만 가두어 두는 편협함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믿는 이들이 아니더라도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마르 9,41) 곧 아주 작은 성의로 도움과 위로와 따뜻함을 보여 주는 이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하늘나라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과 축복과 큰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선하심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에게 행해져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마르 9,42)와 연결 지어서 죄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신체의 일부분들인 ‘손, 발, 눈’은 믿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부분들로 우리 몸에서 죄를 범하는 주요 부분들로 드러납니다. 공격적이고 살인적,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생활하시던 당시 사고방식으로 ‘손, 발,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이 죄를 짓게 되면 잘라버리고 빼내라는 비장하고 엄격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죄의 원인이 되며 이웃에게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나 단체를 위해서도 어두운 분위기, 악한 것, 일치보다 분열과 미움과 충돌, 갈등을 조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엄격한 근절과 단호하게 멀리해야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신앙의 자녀들은 개방되고 포용력이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죄의 원인이 되는 생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생활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느님, 못나고 미약하고 그지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당신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자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아멘.



한관우 가누토 신부
영흥 본당 주임

“외판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마르 1,35): 기도에 관한 영성 피정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외판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마르 1,35)라고 합니다. 복음사가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두 가지 핵심 차원을 알려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이 두 차원은 바로 일상에서 벗어나기와 마음의 침묵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마음의 침묵은 하느님의 소리를 위한 여지를 마련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경청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도의 해에 영성 피정을 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이는 교황 성하께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마음의 쇄신과 영적 회개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비할 데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마태 18,20): 영성 피정의 의미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될 때 당신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성 피정에 참여하는 것은 피정 기간에 함께하는 기도와 공동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현존을 더욱 충만히 체험하는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영성 피정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침묵을 통하여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성 피정의 열매는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의 날들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을 주님의 현존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빛이 될 것입니다. 흔히 분심이 들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에서, 기도 안에 머무는 피정은 우리 도시들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에는 만남의 수단과 기회가 풍부하지만 이는

흔히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가려서 우리가 희망의 참된 샘, 오로지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한 원천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의 해는, 축성 생활자만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한 해 가운데 며칠을 할애하여 주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이나 수녀원, 순례지 등 일부 피정 장소를 선정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정 장소들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도와 영성에 전념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 본당들이 주도적으로 피정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이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사목 임무를 고려하여, 매달 하루 피정 또는 반나절 피정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 외에는 시간이 없는 이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요일 오후나 주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또한 한 해 내내 우리는 영성 피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관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교부들의 큰 사랑을 받은 (‘마음 기도’라고도 알려진) 이른바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님의 현존을 계속 일깨워 주는 화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끊임없는 찬미의 노래를 올립니다. 이는 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바칠 수 있고,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을 위한 전구 기도의 형태로도 바칠 수 있는 기도들입니다.

▶ 4면으로 이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주중에 퇴근길이나 점심시간 등에 시간을 내어 성체 앞에 잠시 머물러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재평가되는 관행들 가운데에는 정기적인 묘지 방문과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 나아가 한 해의 특정 시기들은 특별 기도를 통하여 성인들과 동정 마리아와의 관계를 키우고 강화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 5월과 10월에 거리나 동네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좋은 관행이 이미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성소 식별의 맥락에서 기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에 응답하는 법을 식별하는 자리입니다. 침묵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안에 당신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사랑으로 간절히 청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 모든 기도의 모범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또 그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기도의 모범’으로 여길 수 있는 기도를 알려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인간적 경험과 하느님 신비의 보편성을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이는 ‘아빠’를 향하는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자신이 신비의 현존 앞에 있음을 아는 사람의 심오한 통찰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여 가르치듯,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761-2776항 참조). 이는 하느님의 거룩하심, 하느님 나라, 우리의 일상생활, 상호 용서, 악

과의 싸움 등 우리 존재의 모든 차원을 다루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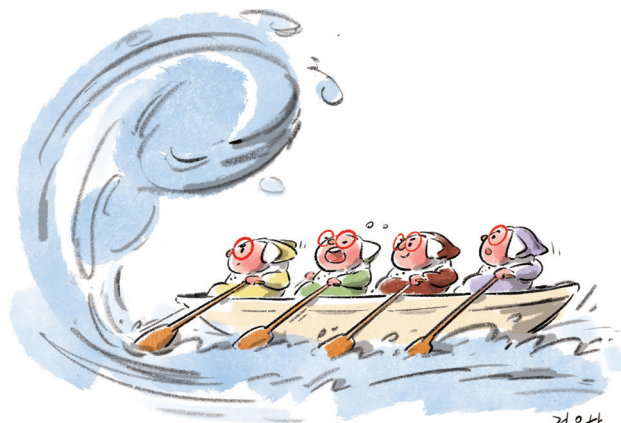
교황 성하께서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가 말들과 필요한 것들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루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자녀다운 신뢰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향하고 단순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교황께서는 ‘빈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수요 일반 알현, 2019.2.27.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 마음의 단순함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기”(마태 6,8) 때문입니다.

· 2025년 희년을 준비하는 2024년 ‘기도의 해’ 사목 자료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갈갈수녀님



정리

함께 도우면 극복할 수 있어요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교구 홍보기자 문영근 안드레아, 장민영 클라우디아, 변훈 바오로



12일(목)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에서 2024년 교구 순교자 현양 미사가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신앙 선조들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도 현세의 삶을 넘어 영원한 삶을 향해 희망을 품고 나아가자”고 권하였다.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인사와 축복을 전하며, “순교는 하느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하는 은총의 선물”이라며 한국 교회 평신도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모습에 경의를 표하였다.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한국 가톨릭 교회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평신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념관 조성을 축하하였다. 이날 미사에는 교구 사제단, 2,500여 명의 신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주무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순교자(이승훈, 권철신, 정약중)의 후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미사에 앞서 고해성사 및 이승훈 묘지 개별 순례, 묵주기도를 바치며 순교자 신심을 고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인천교구 방문

교구 홍보실



12일(목)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가 인천교구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에서 거행된 순교자 현양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안내로 인천교구 주교좌 성당과 새로 지어진 꾸르실로 교육관인 태암레오관, 교구역사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1963년 이탈리아 페스카라 출생으로 1987년 이탈리아 페스카라-펜네대교구에서 사제품을 받고, 2001년 교황청립 외교관학교를 졸업한 후 2020년까지 이란, 알바니아, 멕시코, 리투아니아 주재 교황대사관과 교황청 국무원 외무부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앙골라와 서아프리카 섬나라 상투메 프린시페 주재 교황대사를 역임하다 2024년 3월 2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주한 교황대사에 임명되었고, 지난 5월 31일 입국하였다.

한가위 위령 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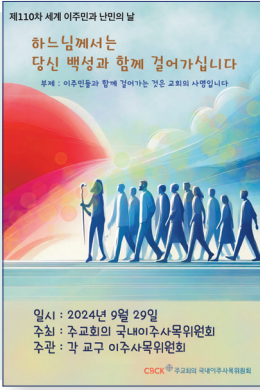


그렇지 못한 현대인의 삶을 묵상하였다. 이어 타인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임을 강조하며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이웃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양보하여, 포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모든 교구민의 기쁜 날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각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하였다.

백석 하늘의 문 묘역에서는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의 집전으로 한가위 위령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용권 신부는 강론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생을 맞이하듯, 탐욕을 버린 삶에서 우리는 자선과 말씀의 실천으로 하느님과 함께 천상 행복을 누리는 애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14일(토) 교구 마전 묘원과 하늘의 문 묘원에서 한가위를 맞이하여, 선종 사제 및 그리운 가족과 조상을 위해 봉헌하는 한가위 위령 미사가 거행되었다. 마전 묘원에서 미사를 집전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강론에서 복음 속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루카 12,15-21)를 언급하며 스스로에는 너그럽지만, 이웃에게



| 교구 안내 |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담화문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9월 마지막 주일, 2024년 9월 29일)을 맞이하여, 주교회의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부제: 이주민들과 함께 걸어가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교구청

교구청 사무처 직원 모집

대상: 계약직 1명(정규직 전환 예정)
업무: 문서관리, 교회 행정업무 가능자
제출 마감: 10/2(수) 제출서류 교구 홈페이지 참조
제출처: samoo@caincheon.or.kr
문의: 032-765-6961

제15차 선교사의 날

일시: 10/19(토) 10:00~18:00 보니파시오 대강당
대상: 본당 선교분과위원, 예비신자 교리교사,
선교사학교 수료자 및 수강자,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
참가비: 1만원(점심제공 및 기념품 증정)
문의: 032-762-9717

17기 사회교리학교 <하반기>

기후위기와 사회교리실천
일시: 10/24~11/14 매주(목) 19:00
11/23 파주DMZ평화기행
장소: 사회사목센터(답동)
문의: 032-765-6970

549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11/3(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김일회 신부와 평화 발자국 순례

일시: 10/26(토) 8:00 교구청 출발
장소: 효순미션 평화공원(경기도 양주)
신청: 10/19까지 (회비-1만5천원)
문의: 010-5590-9134 김강연(정평위)

교육 | 미사

믿음의 길잡이 '성경 인물과의 만남'

일시: 10/4, 11 매월1, 2주(금) 도화동 성당
10:00 미사, 10:30~12:00 강의
강사: 김일회 빈첸시오 신부
(교구 사무처장 겸 여성연합회 지도신부)
대상: 본당 내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 신자
문의: 032-761-6675 여성연합회 사무실

가정선교회 10월 피정

일시: 12:30~17:0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10/2(수) 맹진학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10/5(토) 홍성남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0/19(토) 윤민재 신부
찬양-고영민 부회장팀, 신상옥 가곡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렉시오 디비나, 예수기도 피정

[1일 피정] 렉시오 디비나와 첫 토요일 신심미사
10/5(토) 14:00~17:00(무료)
[4박 5일] 렉시오 디비나
10/23(수) 15:00~27(주일) 13:00
[3박 4일] 예수기도 10/29(화) 15:00~11/1(금) 13:00
회비: [4박 5일] 30만원, [3박 4일] 24만원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수도원
문의: 010-5230-2986
cafe.naver.com/monteoliveto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10/11(금)~13(주일)
성경완독: 11/1(금)~9(토), 12/6(금)~1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자연순례
일시: 10/2~4, 25~27, 11/1~3, 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통사)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노들담 청년 피정(기도하고 노동하라)

일시: 10/26(토) 10:00~27(주일) 15:00
장소: 강화 노들담 생태영성의 집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녀 청년 선착순 20명
참가비: 8만원
문의: 010-3930-6730

예수회 이나시오영신수련 침묵피정

일시: 12/28~25/1/6 예수마음배움터
25/1/16~25, 2/5~14 말씀의 집
문의: 02-3276-7794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

[1차] 12/4(수) 15:00~5(목) 13:00
[2차] 12/18(수) 15:00~19(목) 13:00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8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2차] 11/8(금) 15:00~9(토) 13:00 공지영 작가
[3차] 11/15(토) 15:00~16(주일) 13:00 김탁환 작가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9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내·외적, 영적치유)

일시: 매주(목) 10:30~17:30
장소: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손광배 신부, 이상기 회장,
김완식 회장,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교구 체나콜로 미사

일시: 9/30(월) 작전동 성당
12:30 찬미, 13:00 성시간안에 체나콜로 기도
14:00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시지 책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지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 제101회 성음악미사

일시: 9/29 18:00 구월1동 성당
문의: 010-2040-7977 강신우 프란치스코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7주년 기념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

일시: 10/12(토) 10:00~16:00(14:00 미사)
장소: 천전암 성지(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전국대회)
회비: 1인-2만원(개인도시락 준비)
접수: 성모 순례지(선착순 접수)
문의: 010-8702-5185

모 집 | 일 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위치신청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25학년도 중등 신규교사 채용계획 공고

기간: 9/13(금)~10/18(금)
전형일정: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교육재단 소속 학교 홈페이지: 인천대건고,
박문여고, 박문중, 소명여고, 소명여중
·인천,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문의: 032-766-6985, 6986

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가톨릭 전례음악 및 성음악을 사랑하는 남성교우
남성4부(테너1, 2, 베이스1,2 각0명)
연습: (화) 20:00 가톨릭음악원 전례음악연구소
문의: 010-2040-7977 강신우 프란치스코

온수 성당 성가대 유급 지휘자 모집

서류: 이력서
문의: 032-937-7922, 010-5389-4467

사별가족 돌봄을 위한 개인 만남

부모, 배우자, 자녀상실의 아픔과 슬픔 극복을 위한 도움
문의: 010-2081-6462 노틀담수녀회

25학년도 인천박문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84명(남 42, 여 42)
일반전형접수: 10/28(월) 9:00~30(수) 16:00
일반전형추첨: 11/15(화) 10:00 Youtube
문의: 032-810-8595 교무실
032-810-8591 행정실

25전기(주간) 서강대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영성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영성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원서접수(1차): 9/30(월)~10/10(목)
전형일: 10/19(토)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25학년도 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0/14(월)~25(금)
전형일: 11/15(금)
장소: 최양업홀(충정로역,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대상: 유치부~대학생까지 대장, 대원 모집
문의: 010-2484-0072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7(월~토)부터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문의: 02-338-3793

성가 발성 노래 교실

다 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시: 매주(목) 18:30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10-9842-8818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수도원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후원문의: 010-6680-0692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으로
세속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문의: 0507-1306-1505

순례 | 기타

해외 성지순례

·[1차] 10/8 출발, [2차] 12/10 출발:
라방, 짝꿍 성모발현성지 [5일]
·12/2 출발: 성 김대건 성지 롤롬보이,
마나오그 성모발현성지 [5일]
문의: 010-5909-5997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해외 성지순례

11/13~18 베트남 하노이, 다낭 성지순례 [6일]
11/28~12/2 홍콩, 마카오 성지순례 [5일]
문의: 010-8705-0319 최형베드로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2/3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10/23 발칸 3개국, 메주고리에, 헝가리 [13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10일]
25/1/7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3일]
25/1/12 시칠리아 몰타 [10일] (25/2/10, 3/10)
25/1/17 이탈리아 일주(히년 전대사) [12일]
문의: 010-5235-3533 명동 가톨릭회관 619호

성소모임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일시: 10/5(토) 14:00~6(주일) 13:00
장소: 수도원 본원(경북 왜관)
문의: 010-8353-2323(문자 문의)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
행사 안내

공모전

8/1(목)~9/30(월)

이승훈 베드로 성지순례
체험수기 공모전
(발표 11월 3일자 주보)

초대전

9/14(토)~10/6(주일)

초대작가전
“믿음의 새벽을 열다”
- 하늘 | 뿌리 | 순교

제3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
축제

9/28(토) 16:00
꿈, 희망
그리고 미래의 길
“합창제”

10/8(화)~10/21(월)
인천교구
인천가톨릭미술가회
“미술전”

10/22(화)~11/4(월)
인천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사진전”